

# 한마디 잘못하면 오백생 여우 몸을 받으리라



우주 법계의 현관처럼 미묘하고 그윽한 백장사와 대웅산 자락.



백장선사가 들어우를 제도한 백장야호(百丈野狐) 공안의 현장인 야호암.

백장사 젊은 스님에게 ‘원즉견조사전(願即見祖師殿)’이라는 육두문자를 써서 보여 주자, 내 요구가 통했는지 앞장서 걷는다. ‘아미타불’을 중얼거리며 건들건들 걷는 모습을 보니 무슨 신나는 일이 있었던 것 같다.

법당 바로 뒤에 자리한 조사전을 가까이서 보니 방치돼 있다는 느낌이 더욱 든다. 허술한 정도가 심하다. 전각 앞뒤로 잡초가 무성하고 벽면의 회칠은 덕지덕지 떨어져 있다. 문을 열어 볼 엄두가 나지 않는다. 퇴락한 조사전이지만 꼭 참배하고 싶었던 것은 신라 출신 선사들의 그림자라도 만나기 위해서였다. 백장사에서 가장 유명한 신라 출신의 스님은 10세 주지를 지낸 안(安)선사일 것이다. 속성이 안씨(安氏)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신라 출신의 스님들에게는 중국 스님들과 구분하기 위해 관습적으로 법명 앞에 속성을 붙였던 것이다. 신라 왕자출신 무상선사를 사친 성에서는 ‘김화상’이라고 불렀던 것과 같다.

## “무엇이 화상의 가풍입니까” “수건은 한 치 반 형질이라네”

백장사 젊은 스님에게 대의석(大義石)이 어디 있는냐고 묻자 고개를 한번 가웃하더니 뒷산으로 난 오솔길을 가리킨다. 뒷산은 온통 대숲이다. 대숲 사이로 난 오솔길은 오르기 쉽게 계단을 만들어 놓았다.

대의란 백장정규의 대의를 간절하게 지킨 열반(涅槃)선사의 별호라고 전한다. 열반선사의 가풍은 신라 땅까지 소문 나 있었던 모양이다. 어느 신라 스님이 열반선사를 흠모하여 물어 물어 백장사를 찾았으나 선사가 이미 입적하고 없었으므로 스승을 친견할 수 없는 현실에 절망하여 자기 몸을 절벽 아래로 던졌다고 한다. 그런데 백장사 대중이 절벽 밑으로 가보니 그 신라 스님은 몸에 상처 하나 없이 좌선의 자세로 입적해 있었다고 한다. 그의 옷속에서 나온 계승이 대중을 크게 감동시킨바 향을 사르고 재를 지낸 뒤 대의탑 곁에 임심정(臨深亭)을 세웠는데 지금도 대의석과 정자가 있는지 궁금하다.

오솔길 계단을 오르는 백장사 젊은 스님은 여전히 노래하듯 ‘아미타불’을 흥얼거리고 있다. 나를 대하는 태도는 덩달하지만 성격은 낙천적인 스님 같다. 저 위에 무엇이 있다는 듯 손을 들어 가리킨다. 좁고 가파른 오솔길이라 팔뚝을 나눌 수도 없다. 나는 젊은 스님의 뒤꿈치만 따라갈 뿐이다.

백장사에서 가장 유명한 신라 출신의 스님은 10세 주지를 지낸 안(安)선사일 것이다. 속성이 안씨(安氏)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신라 출신의 스님들에게는 중국 스님들과 구분하기 위해 관습적으로 법명 앞에 속성을 붙였던 것이다. 신라 왕자출신 무상선사를 사친 성에서는 ‘김화상’이라고 불렀던 것과 같다.

안선사는 신라말에 입당하여 강서 무주(撫州, 현 廬川) 소산(蘇山)의 광인(匡仁)선사를 은사로 득도한 뒤 백장산으로 가 자신의 법을 열었다고 한다. 소산은 동산의 제자이니 청원 행사의 손(孫)이 되고, 백장산에서 개법을 했으니 남악 회암의 손도 되는 셈이다. 어쨌든 안선사가 법을 드러내고 있는 선화가 (전등록) ‘홍주 백장 안화상’ 편에 보인다.

법호는 명조(明照)선사이다. 어떤 스님이 물었다. “영롱한 등근 광채 하나를 보았습니다. 무엇이 본체입니까?”

“그대가 멀리 온 것을 위로하노라.”  
“그것은 하나의 영롱한 등근 광채가 아닙니까?”  
아마도 스님의 질문은 좌선삼매 때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환호한 경계를 얘기하고 있는 듯하다. 좌선삼매 중에 영롱한 등근 광채를 보았는데 그것이 바로 마음의 본체가 아니냐는 질문인 것이다. 그러나 안선사는 그를 여러동점하게 만든다.

“차나 한 잔 더 마시게.”  
“무엇이 화상의 가풍입니까?”  
“수건은 한 치 반의 형질이라네.”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면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나도 묻지 않는 것이 없지.”  
“어떤 것이 극칙(極則)입니까?”  
“공왕전(空王殿)에서는 구오(九五, 황제의 지위)에 오르고 촌 늙은이 문 앞에서는 사람을 세우지 않는다네.”  
“인연을 따라 인종해 알 때는 어떠합니까?”  
“인종해 알기 전에는 어떠하였는가.”  
대사는 본래 신라 사람이었는데 백장산에서 대중을 거느리기 시작한 뒤로 가르침을 받은 제자 도공

(道固) 등 7인이 제각기 이어받은 바에 따라 한 지방에서 교화를 폈다. 대사가 입적한 뒤에 문인들이 진영을 그리니 법안(法眼)이 찬(贊)을 붙였다.

## 백장은 왜 황벽에게 뺨을 맞고도 박수치며 웃었을까

명조 안선사와 함께 소산 문하에서 득도하고 백장산으로 온 초(超)선사도 신라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선사의 생몰 연대로 안선사처럼 전해지지 않고 있다. 중국 땅에서 입적하여 행장이 사라져 버린 듯한데, 만약에 신라로 돌아와 제자를 두고 교화를 폈다면 분명한 행적이 전해지고 있지 않을까 싶다.

젊은 스님이 큰 바위 앞에서 걸음을 멈춘다. 그가 가리키는 바위가 대의석인가 싶어 다가가 보니 붉은 글씨로 벽운(碧雲)이라고 음각돼 있다. 한 마디로 대의석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벽운 왼쪽에는 천하청규(天下淸規)라는 붉은 글씨가 쓰여 있다. 그리고 보니 구름 모양들이 박힌 이 자연석이 ‘백장정규비’라는 생각이 든다. 실제로 백장선사가 선원정규를 제정하고 난 뒤 기년으로 천하청규를 새겼다는 얘기가 절에 구전되고 있다. 글씨는 백장선사의 친필이라는 설과 당나라 명필 유공권(柳公權)의 글씨라는 설이 있는데, 젊은 스님은 잘 모르겠다고 한다.

백장정규비 조금 위에는 붓처럼 뾰족한 바위가 쫓겨 있다. 백장선사가 천하청규라는 글씨를 쓰고 난 뒤 붓을 던졌는데, 그 붓이 바위로 변해 석필(石筆)이 됐다는 전설 속의 바위다. 굴이 있는 야호암(野狐巖)은 올라왔던 오솔길 중간중간에서 왼쪽으로 10여m쯤 걸어가자 보인다. 선어록에 나오는 대로 법당 바로 뒷산에 있는 굴이다. (사거록)의 선화를 보자.  
백장이 상당할 때의 일이다. 한 노인이 대중과 함

께 늘 법문을 듣고 가다가 하루는 물러가지 않으므로 백장이 물었다.

“무엇하는 사람인가.”  
노인이 말했다.

“저는 과거 가섭불 때 이 산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한 학인이 묻기를 ‘수행을 많이 한 사람도 인과에 떨어질지나?’ 하고 묻기에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因果不落)’고 대답하여 여우 몸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스님께서 이 몸을 바꿀 만한 한마디를 해주십시오.”

“그럼 질문해 보게.”  
“많이 수행한 사람도 인과에 떨어질지나?”

“인과에 어둡지 않다(因果不昧).”  
노인은 말끝에 크게 깨닫고 백장에게 하직을 고하면서 말했다.

“이제는 제가 여우 몸을 벗고 뒷산에 있을 것입니다. 불법대로 화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백장은 유나에게 종을 쳐서 대중에게 점심 뒤에 죽은 스님을 장사지내겠다고 알리게 하였다. 점심 뒤 백장은 영문을 모르는 대중을 거느리고 뒷산 바위굴 아래로 가서 죽은 여우 한 마리를 지팡이로 꺼내더니 법대로 화장하였다.

지척이 되어 만참(晩參)법문 때 백장이 앞의 인연을 거론했더니 황벽이 대뜸 물었다.

“옛사람은 깨닫게 해주는 한마디(一轉語)를 잘못 대우하였기 때문에 여우 몸에 떨어져 있었습니까. 오늘 한마디 한마디가 어긋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황벽이 말한 이 부분이 (무문관)에서는 오백생 동안 여우 몸을 받았다고 나온다.

“가까이 오게, 그대에게 말해주겠네.”  
이에 황벽이 백장에게 다가가 스님의 파귀를 한 대 쳤다. 그런데도 백장은 박수를 치고 웃으며 말했다.

“오랑캐의 수염이 붉다 하려 하였더니 여기도 붉은 수염이 난 오랑캐가 있었구나.”

이와 같은 선화가 (무문관) 제2칙의 백장야호(百丈野狐)라는 공안이 되는데, 황벽은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식의 말은 결코 선지식으로서 할 소리가 아니라고 스승인 백장에게 여쭙고 있다. 그런

데 황벽은 왜 ‘인과에 어둡지 않다’라고 알려주어 노인을 제도한 스승 백장의 뺨을 한 대 후려쳤을까. 백장은 왜 제자 황벽에게 뺨을 한 대 맞고서도 박수를 치면서 웃었을까. 제자의 무례에도 걸리지 않는 경지가 바로 ‘인과에 어둡지 않다’라는 대답이었다는 것일까.

스승 스님은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가 왜 잘못된 말이냐면 근본 실상자리에서는 떨어지고 말 것도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다.

“선지식 노릇을 잘못했기에 여우 몸을 받은 겁니다. 가혹한 벌을 받은 거지요. 근본 실상자리엔 인과가 없지요. 인이라고 할 것도 없고 과라고 할 것도 없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만 인과가 출현해서 선악이라고 하는 어떤 원인을 짓고 거기에 따른 과보를 받아 나고 죽고 하는 생사가 출몰하는 겁니다. 중생은 누구나 그래요. 다만 깨달음을 이룬 부처님은 예외라고 할 수 있고, 부처님은 우리에게 눈 뜨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참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헤매고 있지요. 부처님이 우리한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한편, 여우 몸을 오백생 받았다고 하는 말에서도 우주법계의 시공이라는 개념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의 한 시간이 저 또 다른 세계에 가면 1년이 될지 10조가 될지 그 누가 알 수 있었습니까. 인과가 본래 없지만 현현이 인연 따라 모양이 만들어지면서 시공이 생겨난 것이니까요.”

젊은 스님이 갑자기 서둘러 하산하려고 한다. 말이 통하지 않고 하던 일을 마쳐 마쳐려고 그런 것 같다. 뒤따라가면서 중국인 길잡이를 통해 “스님, 전설 같은 백장야호 고사를 믿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젊은 스님이 단호하게 “백장사 역사입니다.”라고 답한다.

대웅산 산자락들과 백장사 뒷모습이 저녁 햇살에 그윽하다. 마치 우주 법계의 현관(玄關) 같은 미묘하고 아득한 분위기다. (계속)

글=정찬주, 사진=유동영



since 1999 행복칼럼·기행

다음검색 “아제여행사” ☎ 02) 730-4008

선사들의 서릿발 화두기가 지금도 강하게 흐르는 옛 선사들의 선적지!! 최고의 노하우 아제아제바라아제 아제여행사!!!!

<p><b>달마에서 혜능대사까지 8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발 : 4월 7일 (1차), 5월 12일 (2차)</li> <li>동참금 : 1,690,000원 / 1인</li> </ul>	<p><b>중국 강호선종사찰 8일 (11분선사)</b></p> <p>남악회암 / 마조선사 / 백장선사 / 대우선사 / 황벽선사 / 위산선사 / 양산선사석상선사 / 양기방회 / 석두회현 / 동산선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발 : 2011년 3월 14일 [8일] (1차), 5월 23일 (2차)</li> <li>동참금 : 1,590,000원 ~ / 1인</li> <li>※플랫폼의 잣나무 (정찬주 작가) 증정</li> </ul>	<p><b>신라왕자 무상선사 5일</b></p> <p>15년 두타행굴 어허굴 마조스님 고향 나한사 원오곡스님 주석사 소각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발 : 4월 7일 (1차) 5월 12일 (2차)</li> <li>동참금 : 990,000원 ~</li> </ul>	
<p><b>대혜종교 / 고희원도선사 천축산 4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발 : 3월 29일 (1차), 5월 21일 (2차)</li> <li>특전 : 890,000원 / 1인</li> </ul>	<p><b>* 인도8대성지순례 11일</b></p> <p>- 3월 8일 / 2,390,000</p>	<p><b>* 불탑의 나라 미얀마 6일</b></p> <p>- 3월 15일 / 문의주세요</p>	<p><b>* 지장보살 구화산 / 보타산 6일</b></p> <p>- 4월 10일 / 문의주세요</p>

희말라야 은둔왕국 **부탄 8일**

출발 : 4/7, 5/12, 6/7, 8/2, 8/18  
2,990,000 ~

밀라레파 파드사마바바 아티사 성인들의 이야기  
**티벳으로 떠나는순례** great adventure!!

지구상 최고도를 달리는 정경 교역 **하늘열차**  
달라이라마 정교의지국의 **포탈리궁**

(티벳 / 하늘열차)  
4월 6일 출발 - 1,690,000  
5월 15일 출발 - 1,890,000